

# 변신하는 육군



李 性 律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육군 중령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촉진시키고 전쟁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의 육군은 낙후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미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정예화된 선진육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남** 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협력은 국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다. 과연 남북화해시대는 국방예산과 군대를 줄여도 되는 안전한 시절일까?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 협력은 통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게임을 펼치기 위해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간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게임은 이제부터인데 이겼다고 판단하고 군축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니 답답한 현실이다.

통일게임시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오히려 안보위협 요인이 늘어

날 수가 있다. 군대는 냉전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이 완료된 시대에도 존재하는 영원한 사회간접자본이며 국방예산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보장하는 보험료와 같은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국가 안전보장 개념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 국지·제한전 및 사이버 테러 등 전쟁 이외의 작전소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1년 신년 사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선군정치(先軍政治)의 기치 아래 군부중심의 통치를 지속하면서 무력증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듯한 중국, 러시아, 일본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최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어 우리는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혁신의 가속화를 촉

진시켜 기존 전쟁수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맞추어 군사 조직을 정예화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면서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상황하에서 우리 육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이 부과한 육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대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신하고 있다.

---

### 현대전과 변신하는 육군

---

현대전은 걸프전 이후 정보, 지식중심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 대두되면서 전쟁의 양상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근접전투 위주의 평면적 개념에서 근접전투와 중심전투를 동시 수행하는 입체적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장거리 정밀 미사일과 고성능 헬기 등 첨단 무기체계의 출현으로 비선형 입체 고속기동전이 수행되면서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전쟁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로켓포를 발사하는 코브라 헬기

이러한 현대전의 양상 때문에 육·해·공군의 특징과 역할을 슬기롭게 조화시킨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작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육군의 변신이 꼭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지형과 정치적 환경,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강력하고 정예화 된 선진육군은 통일을 성취케 하는 직접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통일의 주체국은 의연하고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의 양상은 시나이 반도에서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6일 전쟁과도 다르며, 이라크와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과의 걸프전과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두 전쟁에서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속전속결식 승리는 사막이라는 전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표적 덕분에 결정적 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월남전에서 미국은 막강한 첨단 현대무기와 우세한 병력으로도 패배한 것은 바로 표적획득이 정글로 인해 제한을 받은 결과였다. 한반도는 월남의 지형과 유사한 70%가 산악지형이다.

전쟁의 본질은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의지를 상

대국에게 강요하는 행위이며, 최종 목적은 적을 굴복시키고 승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토, 국민, 재산을 탈취, 확보, 통제함으로써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지배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대부분 지상의 목표에 대한 지상작전을 통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육군은 전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전력이다.

첨단무기가 주도했던 걸프전에서도 해·공군력과 첨단무기로 유리한 작전여건을 조성한 후 적절한 시기에 투입된 강력한 지상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멸하고 쿠웨이트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코소보전에서는 NATO측이 유고보다 월등히 우세하였으나 최초 지상군투입을 배제한 결과 유고군의 장기저항과 코소보 주민피해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지상군투입이 거론되고서야 유고군이 굴복하였다. 미래에도 전쟁의 본질과 지상군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합동작전이 강조되는 미래전에서 해·공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확보 및 통제는 여전히 지상군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는 지상군인 육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이러한 미래 역할과 한반도 장차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첨단, 정예화, 디지털화 육군'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력의 정예화, 전력구조의 첨단화, 운영체계의 효율화, 육군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실시간 정보수집, 전과 및 지휘통제 체계를 구비하고 장사정, 고위력, 정밀타격 체계로 적 중심을 무력화하면서 압도적 작전 템포 및 입체적 고속 기동능력을 발전시켜 결정적 작전 수행능력을 구

비할 수 있는 차세대 공격헬기(AH-X)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전력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육군 예산과 방위산업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탈리아의 예를 보면, 병력을 30만에서 10만으로 감축하면서 첨단장비 획득 및 지원병 전문화 등으로 예산을 병력감축전보다 7배나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은 병력규모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23만명이면서 예산은 4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획득실태를 볼 때, 미래에 대비한 첨단전력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국방투자비 대비 육군 점유율은 '91년 50.2%에서 '01년 35.2%로 15%가 감소된 실정이고 신규사업 점유비도 최근 5년간 평균 3%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육군은 예산이 감축된 가운데서도 운영유지비를 절감하여 전력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작전 및 업무수행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원의 감소는 미래육군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곤란케 할 것이다.

이러한 육군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방위산업의 가동률이 '97년의 56.9%에서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방위산업물량의 90% 이상이 육군 물량 이어서 그 영향이 더욱 지대하였다.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구매하면 국내개발이 안 되는 만큼 방위산업의 고용창출이 안 되며 장비유지를 위해 무기의 부품을 계속 사올 수밖에 없다. 결국 방위산업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해외도입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가능한 모든 무기는 국내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하면 방위산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부품을 국내에서 대량생산하게 되

면 가격이 낮아지며 정비와 유지에도 유리하다.

또 그만큼 방위산업체는 기술이 축적되고 직접 생산한 무기는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육군예산의 증감추세와 방위산업의 발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대 형성과 동일 인식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필요

우리의 안보상황은 불확실하고 이중적이다. 북한과는 화해, 협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국은 동북아 패권장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하여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촉진시키고 전쟁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의 육군은 낙후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은 미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정예화된 선진 육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선행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군의 투자재원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군이 왜 강해야만 하고 정예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서 미래 육군을 건설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군 시절의 땀 냄새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명 의식에 걸맞은 육군이 되기 위한 변신에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防**